

[Scene 1] [프롤로그]

“얼어붙을 것 같이 차가운 밤공기.”

“애절하게 울려퍼지는 고양이 울음소리.”

“그리고 그 사이 빈 공간을 채우며 울려 퍼지는 다급한 발소리.”

HN “부디 늦지 않았기를……!”

“나는 떨리는 마음을 간신히 가라앉히고, 전속력으로 아린 선배의 마력 좌표가 지정하는 장소를 향해 달렸다.”

HN “아린 선배! 아린 선배! 들리면 대답해주세요!”

“나는 현장에 도착한 후 빠르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주변에는 오래된 빌딩 한 채가 서있었고, 희미한 가로등빛이 그곳으로 향하는 길을 살며시 비추고 있었다.”

HN “분명 이 근처인데…….”

“나는 마법 지팡이에 가볍게 마력을 담은 후 아린 선배의 마력을 추적했다.”

“이윽고 지팡이와 아린 선배의 마력이 반응해 큰 소리가 울렸고, 소리가 난 방향에서 벽에 기댄 채 쓰러져 있는 아린 선배를 발견할 수 있었다.”

HN “아린 선배!”

잠시 암전 이후 ECG 화면으로

scene ECG Scene1 with dissolve

BGM : 애절함

HN “아린 선배! 정신 차리세요!”

AR “아, 헤나구나…….”

“아린 선배는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얇은 숨을 내뿔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린 선배는 무언가에 깊게 찢렸는지 옷이 한가득 피로 물들어 있었다.”

AR “미안해 헤나야. 나, 죽어버린 거 같아.”

“선배는 담담하게 미소지으며 그렇게 말했다.”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처럼.”

“빠르게 뛰는 심장이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다.”

HN “무슨 소리에요. 선배가 대체 왜 죽어요.”

HN “아직 무슨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배가 없으면 저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린 선배를 끌어안았다.”

“아린 선배는 그런 나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나를 진정시켰다.”

AR “마법소녀를 하면서 언젠가는 죽을 수도 있겠지 생각은 했었는데, 이렇게 빨리 죽게 될 줄은 몰랐네. 헤헤.”

HN “지금이 웃을 때예요? 지금 지원이 오고 있으니까 조금만 버텨주세요.”

HN “분명 괜찮을 테니까.....”

“눈물 방울이 방울방울 아린 선배의 얼굴을 향해 떨어졌다.”

“이런 간절한 나의 맘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린 선배는 이미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인 듯 초연한 표정이었다.”

AR “이 아이, 네로를 부탁해도 될까? 내가 없으면 이 아이는 혼자거든.”

“아린 선배는 주변에서 구슬피 울고 있는 고양이의 목에 자신의 코어, 마법소녀가 가진 힘의 원천이 되는 에너지가 담긴 목걸이를 걸어주고선 가볍게 쓰다듬었다.”

HN “없어진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 정말로 화낼 거예요?”

AR “괜찮아. 헤나라면 분명 괜찮을 거야.”

HN “뭐가 괜찮다는 거예요..... 저는 선배가 없으면.....!”

AR “내가 없어도 꼭 제대로 어엿한 마법소녀가 되어야 한다?”

“선배는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임을 직감했는지 싱긋 웃으며 말했다.”

AR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HN “선배? 선배! 정신 차리세요! 저를 혼자 두고 가지 말아주세요... 안돼... 안돼.....!”

“아린 선배가 서서히 사라져간다.”

“생명을 다한 그녀가 빛이 되어 흩어져간다.”

HN “저를 두고 가지 마세요.....”

“아린 선배를 끌어안아도 품에 안기는 건 빛이 되어 사라진 아린 선배의 흔적뿐.”

“아무리 다급하게 손을 뻗어도 아린 선배는 나의 손을 벗어나 흩어질 뿐이었다.”

scene BCG Black with dissolve (암전, 검은 화면)

“얼어붙을 것처럼 차가운 밤공기. 애절하게 울려퍼지는 고양이 울음소리.”

NR “냐~ 냐~”

“그리고 그 사이 빈 공간을 채우는 다 꺼져가는 빛이 흔들리는 소리.”

“하지만 그 순간, 고양이의 목에 건 아린 선배의 코어에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HN “어... 어라?”

“서글픈 고양이 울음소리는 어느덧 자그마한 여자아이의 울음소리로 바뀌어 시끄럽게 주변을 울리기 시작했다.”

NR “흐... 흐아아아앙! 주인님! 주인님!”

“이 이야기는 나와 한 마리의 고양이. 아니, 돼먹지 못한 마법소녀와 인간이 된 고양이의 이야기.”

“조금 슬프고, 조금 안타까운 그런 자그마한 비극 이야기.”

[Scene 2] [마법소녀의 정의]

“사랑과 정의를 수호하는 마법소녀.”

“사람들에게 미소를 가져다주는 마법소녀.”

“목숨을 걸고 평화를 지키는 마법소녀.”

“우리들은 마법소녀라는 단어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저런 말들을 떠올리곤 한다.”

“하지만 나는 한 명의 마법소녀로서 그런 말을 듣고 무조건 맞다며 고개를 끄덕이기는 어떤지 약간 저항감이 든다.”

“물론 저런 말들이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마법소녀의 존재 이유는 악한 존재로부터 선량한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니까.”

“하지만 아까 이야기한 멋들어진 말들은 강한 마법소녀에게나 통용되는 이야기일뿐, 나 같은 말단 마법소녀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다.”

“나 같은 말단이 하는 일이라고는 뭐, 단순한 일뿐이다.”

“악한 기운이 주변을 물들이지는 않았나 주변을 순찰하거나, 아니면 지금 같은 귀찮은 잡무.”

“\“어째서 막아서는 거야? 어째서?”\”

“악령이 뿜어내는 악한 기운에 사로잡힌 일반인을 정확시키는 일.”

“나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고 그녀를 응시했다.”

“그녀에게서 검은 연기와 함께 엄청난 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처럼 붉어진 얼굴,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파르르 떨리는 손.”

“그리고 그 손에 쥐어진 한 자루의 커터칼.”

“처음 마법소녀가 되었을 때는 그렇게나 무서웠는데, 지금은 이 무시무시한 광경을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익숙해져버린 건지. 아무것도 느낄 수 없게 되어버린 건지.”

HN “진정해. 이런다고 해결되는 건 없어.”

“\“나도 이려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나는 또 버려져서 상처입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나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다 그 자식이 잘못된 건데!\””

HN “네가 잘못된 건 없을지도 모르지만, 이대로 계속 너를 내버려뒀다간 분명 잘못을 하게 되겠지.”

“\”시끄러워!!!\”

“그녀가 분노에 찬 괴성을 질렀다.”

“갈 곳을 잃은 그녀의 분노는 그대로 커터칼의 칼끝으로 향했고, 그 칼끝은 그대로 나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다.”

HN “무슨 일이든 그 과정 속에서 상처받거나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일은 잘못된 일이라고.”

“나는 일직선으로 달려드는 그녀의 손을 가볍게 제압해 커터칼을 놓게 만들고선 그대로 마법으로 그녀의 의식에 가볍게 충격을 주었다.”

“\“으, 으음.....\””

“그리고 동시에 그녀 안에 숨어있던 사악한 영혼들이 빠져나가며 그녀는 정신을 잃었고, 나는 쓰러지는 그녀를 가볍게 받아주었다.”

HN “뭐, 방금 대사는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아린 선배가 했던 말이지만.”

“나는 쓰러진 그녀를 그대로 의자에 앉히고 가볍게 몸을 털었다.”

“ 사악한 영혼들은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위협이 되는 존재는 아니지만, 이렇게 마음이 약해진 인간에게 빌붙어 위험한 일을 일으키는 조금 귀찮은 녀석들이다.”

“ 대부분 연약한 인간의 몸을 빌려야 할 정도로 약하거나, 실체화에 어려움을 겪는 녀석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말단 마법소녀가 해결을 도맡아 하게 된다.”

“나머지는 이제 기억을 지우고 약간의 정화 마법을 걸어주면 끝. 그렇게 마무리 작업을 하려고 손을 뻗었을 때, 지긋지긋할 정도로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SR “수고했어~ 역시 혜나라니까. 악령에 대해서는 완전 전문가잖아.”

HN “어딜 갔다가 이제 나타나는 거야. 학교 담당은 너잖아.”

SR “에이, 그렇게 섭섭한 소리 말고~ 나도 최근 사건들이 많아서 바쁘단 말이야.”

HN “하여간.....”

“이 쓸데없을 정도로 밝고 활기찬 녀석의 이름은 민 세리.”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녀석도 마법소녀다.”

SR “근데 너 변신도 안하고 그렇게 일하다가는 언젠가 큰일난다.”

SR “자신 있는 건 알겠지만 인간 상태의 마법소녀는 그냥 민간인1에 불과하다고. 잘못해서 큰일이라도 나면.....”

HN “네에, 네에.”

“나는 세리의 조언을 흘려들으며 쓰러진 그녀의 기억을 지웠다.”

“이걸로 일어나면 자신이 자고 있었다는 사실만 기억에 남겠지.”

SR “정말이지, 사람이 기껏 조언해주고 있는데.....”

SR “그나저나 말이야, 소식 들었어?”

HN “무슨 소식?”

SR “아린 선배 코어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대.”

“세리는 잠들어 있는 아이의 볼을 쿡쿡 찌르며 무심한 표정으로 말했다.”

“코어, 마법소녀의 심장이자 마법소녀의 힘의 근원.”

“마법부는 아린 선배의 죽음에 관해 조사하며, 단서가 될 수 있는 여러 증거들을 수집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SR “사건 당일에 아린 선배 코어 본 적 있어?”

“찌릿, 심장에 전류가 흐르는 기분이 들었다.”

“다시 한 번 그때의 기억이 역류해 터져버릴 것 같았다.”

“나는 간신히 감정을 억누르고, 자그맣게 소리를 뱉었다.”

HN “도착했을 때 이미 코어는 없었어.”

SR “그래? 그러면 아린 선배를 습격한 녀석이 코어까지 가져가버린 건가. 곤란하게 됐네.”

“확실히 코어가 사라졌다는 건 꽤나 중대한 사건이다.”

“마법소녀의 코어는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나 같이 약한 마법소녀의 코어를 5개만 모아도 건물 하나를 찌그러 날려버릴 정도의 위력을 만들 수 있을 정도니까.”

“더군다나 그게 아린 선배의 코어라면, 사용 방법에 따라 큰 위협을 가져올지 모른다.”

HN “\‘하지만 그 위험한 걸 지금은 고양이가 가지고 있단 말이지.....\’”

“나는 문득 사람이 되어버린 아린 선배의 고양이, 네로를 떠올렸다.”

“자칫 위험하게 사용될 수 있는 코어를 가지고 사람이 되어버린 고양이.”

“이런 이야기를 전부르게 꺼냈다가는 네로는 마법부에 끌려가버릴지도 모른다.”

“네로를 부탁한다는 아린 선배의 부탁을 받은 이상, 네로의 이야기를 마법부와 큰 연관이 있는 세리에게 할 수는 없었다.”

SR “혹시라도 단서를 찾게되면 꼭 알려줘. 물론 나도 열심히 찾아보긴 하겠지만.”

HN “네가 말하는 열심히는 믿을 수가 없는데.”

SR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래 뻔도 요즘은 열심히 일하고 있다구!”

“세리는 볼을 뽕뽕하게 부풀리고선 나에게 불평했다.”

HN “그럼 나는 가볼 테니까. 더 열심히 일해.”

SR “히잉~ 칭찬해줘! 쓰담쓰담해줘!”

“나는 툭툭대는 세리를 내버려둔 채로 책가방을 메고 교실 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교실을 나서기 전, 잠시 뒤를 돌아 세리를 바라보았다.”

HN “있잖아.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

SR “응? 뭔데?”

HN “넌 이 아이가 악령에 사로잡히지 않았어도 이 아이를 도와줄 거야?”

SR “갑자기 뭐야. 그런 건 왜 물어봐?”

“세리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망설임 없이 말했다.”

SR “규정으로 금지되어 있잖아. 알고 있으면서.”

HN “그렇지. 금지되어 있지.”

SR “그럼 해나 너는?”

HN “나는.....”

“나는 세리에게 빙긋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HN “모르겠으니까 물어봤지.”

SR “이논이 진짜.....”

[Scene 3] [마법소녀의 정의란 무엇인가]

“마법소녀에게 있어서 \‘정의\’는 무척이나 중요한 개념이다.”

“마법소녀에게 있어서 정의는 자신을 지탱하는 힘의 근원이자,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와도 같은 것이다.”

“그렇기에 개개인의 정의는 마법소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모든 마법소녀들에게는 공통되는 규칙이 있다.”

“마법소녀는 언제나 모두에게 정의로워야 한다.”

“마법소녀는 언제나 모두의 행복을 위해야 한다.”

“그래, 마법소녀는 \‘모두에게\’ 정의로워야 한다.”

“그 말인 즉슨, 마법소녀의 힘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 흐름에서 등장한 마법소녀에게 정말 중요한 규칙 한 가지.”

“\‘마법소녀의 힘을 인간에게 쓰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지한다.\’”

“어라?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

“마법 같은 강력한 힘을 평범한 인간에게 쓰는 건 그 자체로는 해서는 안되는 일이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겠지만, 사실 이 규칙의 진정한 뜻은 따로 있다.”

“바로 마법소녀의 힘이 특정한 누군가를 향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면 대충 이런 거다.”

“은행을 털기 위해 침투한 강도가 있었다. 그 강도의 가족은 뼈저리게 가난했기 때문에 은행을 털지 않으면 더 이상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런 상황에서 마법소녀의 힘은 어느 쪽을 향해야 하는 걸까?”

“은행을 털어서라도 가족을 먹여살리려고 했던 강도를 막아서야 하는 걸까? 한 가족이 조금이라도 더 살아갈 수 있도록 은행을 터는 강도를 방관해야 하는 걸까?”

“물론 이 질문에는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다.”

“어느 쪽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답도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하지만 마법소녀 같이 강력한 힘이 개입하는 건 별개의 문제다.”

“마법소녀 개개인의 사사로운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는 ‘모두를 위한 정의’와는 멀어지게 된다.”

“그렇기에 마법소녀는 ‘인간’에게는 개입하지 않는다.”

“악령이나 괴물 같이 명백하게 무익한 이계의 존재에 대해서만 활동할 것.”

“그것이 ‘마법소녀의 힘을 인간에게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규정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다.”

“강력한 힘에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마법소녀에 걸맞은 중요한 규칙이라고 생각했다.”

“적어도 나는.”

AR “그럼 당장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도 구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는 건가요?”

N “그래, 마법소녀로서 사사로이 힘을 쓰는 건 금지다.”

AR “으으... 마법소녀는 잘못된 일을 바로잡고, 정의를 실현하는 존재 아닌가요?”

N “마법소녀 조항 6조 8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아린이 너도 알 텐데?”

N “마법소녀의 독단으로 내린 선부른 판단이 일반 민간인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사건.”

N “누군가를 마법소녀로서 돕는 건 너의 개인적인 정의일뿐이지 모두에게 올바른 정의라고는 할 수 없어.”

“아린 선배와 함께 정의에 관한 교육을 받던 도중, 아린 선배가 번쩍 손을 들고 했던 말이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다.”

AR “그럼 마법소녀로서 힘을 쓰지만 않으면 괜찮은 건가요?”

N “뭐?”

AR “마법소녀가 아니라, 인간 아린으로서 정의를 실현하는 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 말을 들은 마법소녀 선배는 깜짝 놀란 듯 아린 선배를 바라보았고, 이윽고 웃음을 터뜨리며 답했다.”

N “하하하, 그래. 네가 인간으로서 너의 신념을 지키고 싶다면 그렇게 하도록.”

“나는 그 말을 듣고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아린 선배의 정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의와는 전혀 다른 숭고한 것이었으니까.”

“자신의 뚜렷한 신념을 가지고, 자신의 뚜렷한 정의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의지.”

“아린 선배는 단지 아린 선배를 동경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마법소녀가 된 나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었으니까.”

“\‘넌 이 아이가 악령에 사로잡히지 않았어도, 이 아이를 도와줄 거야?\’”

“아린 선배였다면 분명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맨손으로 나서서 그녀를 설득했겠지.”

“아린 선배라면, 아린 선배였다면.”

“이제 와서 실현될 리 없는 가정법이 자꾸만 머리에 맴돌아서 쓰러질 것만 같았다.”

scene BCG 집안 with dissolve

show SCG 헤나 중앙

HN “다녀왔습니다.”

“아무도 없을 집안에 습관적으로 인사를 하고, 터덜터덜 발을 끌며 간신히 방문을 열고 책가방을 내려놓았다.”

NR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들릴 리 없는 자그마한 목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아... 그리고 보니 네가 있었지.”

“눈 앞에는 자그마한 여자 아이가 몸을 쭈뼛거리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윤기가 흐르는 검은 머리칼, 도도한 눈빛, 그리고 목걸이로 걸고 있는 녹색빛 코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린 선배가 키우던 고양이였던 네로가 한 발짝, 한 발짝 나를 향해 다가와 내 소매를 붙잡았다.”

HN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그녀가 고개를 푹 떨어뜨린 채로 내품을 파고 들어온다. 눈에 한가득 눈물이 맺힌 채로, 파르르 몸을 떨며 나를 꼭 끌어안았다.”

NR “쓰다듬어 주세요.”

“표정을 숨기고 싶었던 걸까.”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이고선 내 손을 잡고 그대로 자신의 머리 위로 올렸다.”

HN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나는 그런 그녀를 하염없이 쓰다듬으며 그렇게 생각했다.”

“어째서 죽어버린 거예요. 아린 선배.”

“달빛이 흘러내린다.”

“하늘이 채 담지 못해 흘러내린 달빛은 그대로 방안으로 스며들어, 아직 정리하지 못한 감정을 툭툭 두드린다.”

“우리는 그날 밤의 너에게 벗어나지 못한 채 하염없이 달빛을 맞았다.”

“하염없이 젖어가는데, 우산도 없이.”

[Scene 4] [네로와 코어]

“네로는 코어의 힘으로 사람이 된 걸까.”

“마법소녀의 코어가 동물에게 영향을 끼쳐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사실 전혀 들어본 적 없는 내용이었다.”

“코어가 인간에게 영향을 끼쳐 다른 마법소녀가 수습을 나갔다는 일은 종종 들어볼 수 있는 이야기다.”

“하지만 코어가 동물에게 영향을 끼쳐 일이 벌어졌다는 이야기는 아마 전 세계를 통틀어 본다고 해도 그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일 것이다.”

“마법소녀의 코어는 마법소녀가 가지는 정의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 마법소녀가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어떤 속성의 힘을 가지는지,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는지가 달라지게 된다.”

“하지만 그 존재가 고양이라면? 고양이에게 정의란 건 뭐지?”

“그것도 아니라면, 네로를 사람으로 바꾸고 싶었던 아린 선배의 의지가 반영된 걸까?”

“네로는 내 품에서 울다 지쳤는지 이불 속에서 푹 잠들었다.”

HN “뭘 잘 부탁한다는 거예요, 선배.”

“곤란하다구요, 이 고양이는.”

“제어되지 않는 마법소녀의 코어는 무척 위험하다.”

“더군다나 인간도 아니고 고양이가 그 코어를 가지고 있고, 그 고양이가 인간이 되어 우리 집에 머물고 있다니.”

“분명 마법부에 발각되면 그냥 징계로는 끝나지 않겠지.”

HN “잘 때도 메고 있는 건가. 아린 선배의 코어.”

“네로는 곤히 잠들어 있는 와중에도 코어를 지키려는 듯 몸을 둥글게 말고 어딘가 경계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런 네로의 코어를 향해 가볍게 손을 뻗어보았다.”

“하지만 그 순간 네로는 눈을 번쩍 뜨더니 내 손을 쳐냈다.”

NR “싫어. 이건 아무한테도 안 줘.”

HN “있잖아, 네로. 그 목걸이 나에게 주지 않을래?”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네로는 화들짝 놀라 코어를 두 손으로 꼭 쥐고 표정을 찡그렸다.”

NR “싫어. 이건 주인님이 나에게 남겨준 거야.”

HN “그건 알고 있지만 그건 위험한 물건이야.”

HN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네로 너도 위험해질 수 있어.”

NR “너도 빼앗아가려는 거야? 너도 나에게서 주인님을 빼앗아 가려는 거야?”

“네로의 눈에 한가득 눈물이 맺혔다.”

“그야 그렇지, 아린 선배가 남겨준 물건이니까.”

HN “나도 그 목걸이는 내가 가지고 있었으면 해. 선배가 너에게 남겨준 마지막 물건이니까.”

HN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HN “그 물건은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물건이라고.”

“나는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HN “그 코어는 너무 위험해. 나조차도 제대로 제어할 수 없을 정도니까.”

NR “으으.....”

“네로는 불만스러운 듯 자그맣게 볼을 부풀렸다.”

“귀엽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HN “마법부에서 계속해서 코어를 찾고 있어.”

HN “내가 막으려 해도 언젠가는 빼앗기고 말 거라고. 그럼 네로 네가 위험해져.”

HN “너를 부탁한다는 아린 선배와의 약속도 지키지 못할지도 몰라.”

“네로는 코어를 만지작만지작거리며 할 말을 찾는 것 같았다.”

NR “그렇다면 나를 놀이동산에 데려다 줘.”

HN “놀이동산?”

“갑자기 네로의 입에서 정말로 뜬금없는 이야기가 튀어나왔다.”

“갑자기 놀이동산?”

NR “놀이동산에 가고 싶어.”

HN “놀이동산은 왜?”

NR “주인님이 항상 가고 싶어 했어. 놀이동산.....”

“아린 선배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가.”

“하지만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건 아니었다.”

“아린 선배는 항상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학교 생활이든, 마법소녀 일이든.”

“주말도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으니 하루쯤은 놀이동산에 가서 실컷 놀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NR “놀이동산이라는 곳에 데려다주면 이 목걸이 돌려줄게.”

“네로는 목걸이를 가볍게 어루만지며 말했다.”

NR “\‘주인\’과 함께 하는 마지막 추억을 남기고 싶어.”

“아린 선배와 함께 하는 마지막 추억.”

“그 말에 가슴이 꾸욱 하고 아파왔다.”

“나는 결국 아린 선배와의 추억조차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거구나.”

HN “미안해.”

“나는 네로의 손을 가볍게 쥐고 말했다.”

HN “놀이동산에는 꼭 데려다줄게. 그때까지는 코어를 가지고 있어도 좋아.”

“네로는 고개를 두 번 짧게 끄덕였다.”

“코어를 돌려받으면 네로는 다시 고양이가 되는 걸까.”

“앞으로의 일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네로를 부탁한다는 아린 선배의 약속에 관해서도.”

“어엿한 마법소녀가 되어달라는 약속에 관해서도.”

[Scene 5] [흔들리는 정의]

SR “헤나야~ 조금만 도와줘~”

HN “싫어.”

SR “헤나라면 당연히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HN “어째서 그렇게 생각했을까.”

SR “어차피 한가할 테니까!”

HN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SR “미안미안미안! 진짜 장난 안 치고 헤나가 필요해! 헤나가 꼭 필요한 일이야!”

“세리 이 녀석, 정말로 짜증난다니까.”

“나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집으로 돌아가려던 발걸음을 멈췄다.”

“네로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탓에 한시라도 빠르게 집에 돌아가고 싶지만, 저렇게 간절하게 빌 정도면 무언가 일이 있는 거겠지.”

HN “무슨 일 있어?”

SR “그게 말이야, 아린 선배 일로 질문할 게 조금 있어서.”

HN “그런 거라면 그렇게 말을 하라고.”

“정말이지 귀찮은 성격이라니까.”

SR “그리고 그런 김에 사소한 악령 퇴치를 조금.....”

HN “집에 간다.”

SR “아! 가지마! 부탁이야! 제발!”

“정말이지 귀찮은 성격이라니까.”

“세리는 도망가려는 나의 옷소매를 질질 잡아 끌고서 멋대로 이야기를 진행시켰다.”

“쓸데없이 힘만 세다니까, 세리 녀석.”

SR “그래서 말이지. 아린 선배 사건에 대해 조금 더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조사 역할을 내가 맡게 됐거든.”

HN “말했잖아. 내가 알고 있는 건 그게 다라니까.”

SR “그건 알고 있지만, 현장 조사를 계속해서 특별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서 말이야.”

HN “특별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마법소녀와 관련된 사건 조사가 현실의 현장 조사와 가장 다른 게 있다면, 그건 바로 목격자나 사건에 관련된 흔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런 불확실한 수사 환경에서 단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건 현장의 마력 흐름이다.”

SR “아린 선배가 죽은 곳 근처에서 계속해서 마력 흔적을 추적해봤는데, 도저히 아린 선배의 마력 흔적 외의 다른 마력 흐름을 찾을 수가 없었어.”

SR “다시 말해서 그 장소에 있었던 건 아린 선배뿐이었다는 거지.”

HN “그렇다는 건 사건이 다른 곳에서 일어났다는 거야?”

SR “우선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타당하겠지.”

“세리는 손가락을 흔들며 나름의 추리를 이어나갔다.”

SR “아린 선배가 다른 녀석들에게 쉽게 당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해. 아린 선배는 강하니까.”

SR “그렇기에 가장 유력한 설은 이렇지 않을까 해.”

SR “아린 선배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던 존재가 아린 선배를 기습해서 코아를 빼앗고 날카로운 무언가로 찔렀다.”

SR “그리고 아린 선배는 간신히 그 장소에서 벗어나 먼 거리를 이동했지만,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다.”

SR “지금 추측할 수 있는 건 대충 이 정도인데.....”

“세리의 추측은 확실히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

HN “그래서 나한테 사건이 일어났던 그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듣고 싶다는 거지?”

SR “응, 바로 그거지.”

“하지만 나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다.”

HN “미안하지만 아린 선배는 나한테 범인에 대해서 한 마디도 안 해줬어.”

SR “정말 아무런 말도 안 해줬다고?”

HN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

HN “범인에 관한 정보가 있었으면 내가 가장 먼저 달려갔겠지.”

SR “이거 참 곤란하게 됐네. 이러면 마을 전체로 수색 구역을 확대하는 수밖에는 없나.”

“세리는 귀찮다는 듯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세리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 번 ”

“내가 당해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존재에게 당했던 걸까?”

“아니면 내가 알았던 안 되는 비밀에 연관된 존재였던 걸까?”

“의심은 깊어져만 가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SR “자, 도착했어. 그러면 지원 부탁해~”

HN “아까 전에 말한 악령 퇴치, 그거 진짜로 하는 거였어?”

SR “헤헤헤, 검사검사 하는 거지. 검사검사.”

검사검사 같은 소리하고 있네. 여우 같은 녀석.

나는 목에 걸고 있던 코어에 가볍게 힘을 주고서 가볍게 중얼거렸다.

HN “변신.”

SR “오오~ 오랜만이네 헤나가 변신하는 거.”

“.....”

HN “어라?”

SR “뭐야? 왜 그래?”

HN “변신이 안돼.”

SR “뭐? 아무리 도와주기 싫어도 그런 장난을.....”

HN “장난이 아니라, 진짜로.....”

“어째서 변신이 안 되는 거지?”

“코어에 손을 얹고 아무리 마력을 흘려넣어도 변신이 될 기세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HN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SR “그럴 리가 있나. 변신을 까먹는 마법소녀가 어디 있냐고.”

HN “아아.....”

SR “여기 앉아 있어, 후딱 해치우고 올 테니까.”

HN “혼자 할 수 있었으면서 또 부러먹고.”

SR “지금 그런 소리 할 때야?”

“세리가 화려한 자세로 악령과 싸우기 위해 길게 도약했다.”

“변신이 안된다니, 마법소녀가 되고 나서 한 번도 이런 적 없었는데.”

“나, 어떻게 되어버린 걸까.”

“나는 세리가 싸우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저렇게 잘 싸울 수 있으면서 쓸데없이 나를 끌고 다닌다니까.”

“악령은 순식간에 세리의 마법에 녹아내려 사라졌고, 세리는 그대로 다급하게 내 앞을 향해 뛰어왔다.”

“묘하게 화가 난 표정이었다.”

SR “변신, 아직도 안 돼?”

HN “아, 응..... 뭔가 잘 안 되네.”

SR “크으으... 진짜로 장난치는 거 아니고?”

HN “장난치는 거 아니야.”

“나는 가볍게 웃으며 이야기했지만 세리는 전혀 그럴 기분이 아닌 모양이었다.”

SR “차라리 장난치는 거라고 해.”

SR “너, 마법소녀가 변신을 못하게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

HN “요즘 좀 부실하게 먹었나.....”

SR “마법소녀가 변신을 못하게 된다는 건, 더 이상 너에게 마법소녀를 계속하는 의미가 없다는 뜻이라고!”

“마법소녀를 계속하는 의미.”

“세리의 그 말을 듣고 어쩐지 납득하고 말았다.”

“마법소녀가 가지는 힘의 원천은 정의로운 마음이다.”

“악에게 대항하려는 마음, 누군가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

“모든 마법소녀들은 자신만의 정의를 가지고 싸우는 이유를 찾아나간다.”

SR “아린 선배는 너에게 있어서 /‘전부’/였던 거야?”

SR “아린 선배를 빼면 너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야?”

“내가 싸우는 이유는 뭐지.....?”

“아린 선배를 빼면 나에게는 무엇이 남는 거지?”

“나에게 있어서 정의는 아린 선배뿐이었는데.”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항상 아린 선배뿐이었는데.”

“나는 이제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 거지?”

SR “아직은... 아직은 못 놓아줘.”

HN “응?”

SR “아린 선배에 이어 너까지 잃을 수는 없어.”

“세리의 말을 듣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보니 변신을 할 수 없게 된 마법소녀는 정신이 무너져 타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던가.”

SR “아직 아린 선배를 죽인 범인을 찾지 못했어.”

SR “네 손으로 아린 선배를 죽인 범인을 잡아내라고.”

“세리는 나의 손을 꼭 잡은 채로 놓아주지 않았다.”

“세리는 아플 정도로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SR “그때까지는 안 놓아줄 거야.”

“그래 맞아. 아직 내가 마법소녀를 포기하기는 너무 이르다.”

“나에게는 아직, 아린 선배를 죽인 범인을 찾는다는 목표가 있으니까.”

“나는 그런 세리를 가볍게 껴안고서 말했다.”

HN “응, 고마워.”

[Scene 6] [첫 마법소녀]

“내가 마법소녀가 된 이유는 단순했다.”

“아린 선배, 이 한 사람이 내가 마법소녀가 된 이유였다.”

“나는 어렸을 적 무척이나 소심하고, 겁이 많은 성격이었다.”

“다른 아이들이 악의에 찬 미소를 지으며 달려들어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묵묵하게 참고 있는 괴롭히기 좋은 아이.”

“다른 아이들에게는 내가 아마 그런 형편 좋은 아이로 비춰지고 있었겠지.”

“아린 선배는 항상 그런 나에게 항상 손을 뻗어주었다.”

“아린 선배는 언제나 나쁜 녀석들을 보면 소리치며 달려들었고, 나쁜 행위를 보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행동했다.”

“아린 선배는 그래, 정의의 사도였다.”

“하지만 나는 그냥 그저 그런 민간인이었다.”

“항상 악의 손길이 뻗치는 길에 있었던 불행한 민간인.”

“정의의 사도가 주는 도움에 눈시울을 붉히며 ‘무서웠어!’라고 징징대는 수준의 행인A.”

“멋진 히어로를 동경했던 자그마한 꼬마 아이.”

“언제나처럼 아린 선배에게 도움을 받아 나쁜 아이들의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나

는 아린 선배에게 그렇게 물었다.”

“그냥 단순한 변덕으로, 그냥 단순한 호기심으로.”

HN “어떻게 하면 아린 언니처럼 될 수 있어?”

“그리고 그런 아린 선배는 잠깐 나를 멍하게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AR “마법소녀, 해보지 않을래?”

“그래, 내가 마법소녀가 된 계기는 아린 선배였다.”

“하지만 그 아린 선배가 더 이상 내 앞에 없다고 한다면, 나는 도대체 무슨 정의를 가지고 마법소녀를 계속해야 하는 걸까.”

“정의란 건, 도대체 뭘까.”

“나에게 있어서 정의는 이미 저 멀리 사라져버렸는데.”

HN “다녀왔습니다.”

“집안에 들어와 습관처럼 인사를 했다.”

NR “어서와.”

“그리고 오늘도 네로의 목소리가 나를 반겼다.”

“여전히 네로의 목에 걸린 코어가 연한 녹색빛으로 반짝였다.”

“그런데 어째서일까, 네로는 명백하게 옷이며 머리카락이며 많은 것이 더러워져 있었다.”

HN “무슨 일 있었어?”

NR “응? 아무 일도 없었는데.”

HN “근데 왜 이렇게 더러워. 혹시 나갔다 왔어?”

NR “자... 잠깐 동안 밖에 나가고 싶어서.....”

“네로는 흠바닥이라도 텅굴고 온 건지 옷은 진흙이 묻어 완전히 더러워져 있었고, 머리는 형클어져서 이곳저곳 엉겨있었다.”

HN “나갔다 오는 건 내가 별로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이렇게 더러워진 채로 우리 집에 있는 건 내가 허락 못 해. 당장 씻고 와.”

NR “시... 싫어..... 고양이일 때는 이 정도는.....”

HN “지금 너는 고양이가 아니잖아. 빨리 씻고 와.”

NR “인간이 어떻게 씻는지 모르는데.”

HN “그... 그건.....”

“확실히 고양이한테 인간처럼 씻으라고 해도 잘 모르겠지. 그건 그렇지만.....”

“그런 나의 마음을 읽었는지 네로는 싱긋 미소지으며 나에게 한 발 다가왔다.”

NR “그럼 씻겨줘.”

HN “뭐?”

NR “주인님이 있을 때는 종종 씻겨줬어. 빨래하는 것 같아서 재밌다고 그랬어.”

HN “인간이랑 고양이랑 똑같겠냐고, 크기가 얼마나 차이난데.”

NR “그럼 안 씻어.”

“네로는 볼을 뽕뽕하게 부풀리고선 그 자리에 눌러앉아버렸다.”

“정말이지, 고집만 세가지고.”

HN “알았어. 씻겨주면 될 거 아니야. 씻겨주면.”

“나는 눌러 앉아버린 네로의 옷을 억지로 잡고 끌어서 그대로 욕실로 향했다.”

NR “빨리 벗어.”

“네로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멍하니 올려다 보았다.”

NR “변태.”

HN “네가 씻겨달라며!”

장면 전환

HN “눈 꼭 감고 있어. 샴푸 들어가니까.”

NR “응.”

“네로는 두 눈을 꼭 감고 내가 물을 뿌리기를 기다렸다.”

“정말이지, 어찌다 이렇게 된 건지.”

“나는 샴푸 가득한 네로의 머리카락을 정성스럽게 씻겨주었다. 여자아이는커녕 동물 한 마리 씻겨본 적이 없었는데.”

NR “뭔가 이상한 기분이야.”

HN “뭔가 이상한 기분인데.”

NR “주인님이 씻겨줄 때랑은 뭔가 다른 기분이 들어.”

HN “무슨 기분.”

NR “아해.”

HN “시끄러 이 변태 고양이야.”

NR “흐흫.”

“아린 선배는 자주 이 녀석을 씻겨줬던 걸까.”

“물론 인간이 아니라 고양이일 때겠지만.”

HN “아린 선배만큼 다정하게 못 해줘서 미안하게 됐네요.”

NR “으응~ 주인님도 나 찢겨줄 때만큼은 엄청 화내고 그랬어, 맨날 가만히 안 있고 버둥댄다고.”

HN “지금은 용케도 가만히 있네.”

NR “인간이 돼서 그럴지도.”

“네로는 암전히 물을 맞으며 가볍게 다리를 흔들었다.”

NR “주인님이 더 이상 없다고 해도 주인님이 나에게 남겨준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으니까.”

HN “응?”

NR “그러니까 헤나도 꼭 주인님처럼 할 필요는 없어. 헤나가 주인님을 대신할 필요는 없어.”

“아린 선배를 대신할 필요는 없다.”

“네로의 말에 무언가 울컥하며 올라오는 기분이 들었다.”

HN “아린 선배는 나에게 있어서 전부였어.”

NR “응,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네로는 나를 향해 빙글 돌아보며 싱긋 미소지었다.”

NR “헤나는 헤나답게 행동하는 게 좋아.”

HN “나답게.....”

“아린 선배가 없다고 해도 아린 선배가 남겨준 감정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

“아린 선배처럼 되고 싶었다.”

“아린 선배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었다. 악에 맞서 저항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정말로 중요한 건 ‘아린 선배처럼’이 아니잖아. 바보야.”

HN “아린 선배가 없다고 해도, 분명 할 수 있는 일일 텐데.....”

NR “응?”

HN “아니야, 그냥 이쪽 이야기.”

“나는 다짐했다.”

“정의로운 사람이 되자고.”

“‘아린 선배처럼’이 아니라, 내가 믿는 정의를 지키는.”

“우선은 아린 선배가 맡긴 이 아이를 위해서.”

[Scene7]

“세리와 함께 아린 선배를 죽인 범인을 찾기 시작한지 며칠이 지났을까.”

“세리 쪽에서 먼저 아린 선배를 죽인 범인에 관한 소식을 이야기해주었다.”

SR “아무래도 찾은 거 같아.”

HN “정말로?”

SR “정확한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날카로운 칼날을 무기로 사용하는 녀석이 최근 근방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양이야.”

SR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 없이 조용하게 주변을 물색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내가 이런 사소한 흔적을 놓칠 리가 없지. 후후.”

“날카로운 칼날..... 확실히 아린 선배는 무언가에 찔려서 죽었었지.”

HN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확신할 수 있는 거야?”

SR “지난 번에 이야기 했었잖아? 아린 선배의 마력 흐름 외에는 다른 마력 흐름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HN “그랬었지.”

SR “거기에 한 가지 놓치고 있던 가능성이 있었어.”

SR “아린 선배를 죽인 범인이 아린 선배와 마력 흐름이 유사하다면, 범인의 마력이 아린 선배의 마력에 묻혀서 확인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거지.”

HN “그렇다는 건.....”

SR “응, 그 녀석은 아린 선배와 마력 흐름이 상당히 유사해.”

“마력의 흐름은 마법을 다루는 자들의 지문 같은 것이다.”

“그야말로 일치할 가능성은 낮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니다.”

SR “자신과 비슷한 마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빼앗아서 흡수하기도 쉬우니까.”

SR “코어를 노린 강도 사건이라면 애초에 마력 흐름이 비슷한 쪽이 더 납득이 가지.”

HN “정확한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건 아직 수색중인 거지?”

SR “응, 계속해서 마력을 추적하고 있어, 아마도 며칠만 더 있으면 그 정체를 밝혀낼 수 있을 거야.”

HN “그래, 고마워.”

SR “내가 원래 해야할 일인데 뭐.”

“나는 내 목에 걸려 있는 코어를 다시 한 번 꼭 쥐고 다짐했다.”

“선배, 반드시 선배의 복수는 내가 할게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Scene8]

NR “여기가 놀이공원?”

HN “그래 여기가 놀이공원이야.”

“시간이 약간 흐르고, 모든 일정이 끝난 주말.”

“나는 네로와 함께 놀이공원을 방문했다.”

“대체 얼마만의 놀이공원인지. 수많은 아이들이 떠들썩하게 뛰어다니며 놀이공원을 한껏 즐기고 있었다.”

NR “뭔가 재미있어 보여!”

HN “그리고 보니 아린 선배 스릴 넘치는 거라면 환장하는 사람이었지.”

NR “하하, 주인답네.”

“아린 선배를 죽인 범인의 정체는 빠르면 이틀 안에 밝혀낼 수 있다는 모양이었다.”

“결전을 앞두고 나는 네로와 약속을 이루어주기로 결심했다.”

“아린 선배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이 끝나기 전에 코어를 돌려받아야할 필요도 있었으니까.”

NR “사람이 엄청 많아!”

HN “그러게, 주말이라 그런가 사람이 엄청 많네.”

NR “주인님은 왜 여기를 오고 싶어 했던 걸까?”

HN “그건 지금부터 한 번 알아봐야지.”

“나는 네로의 손을 잡아 끌고 놀이동산의 이곳저곳을 방문했다.”

“회전목마 같은 고전적인 놀이기구부터 롤러 코스터 같은 스릴 넘치는 놀이기구도 탔다.”

“네로는 처음에는 놀란 듯 나를 짹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지만 점점 놀이기구에 익숙해진 듯 잔뜩 소리를 지르며 놀이기구가 주는 스릴을 만끽하기 시작했다.”

NR “재밌어! 완전 재밌어!”

HN “그렇네. 재밌네.”

“나는 그렇게 네로와 함께 놀이동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오랜만이였다.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게.”

“점점 뉘엿뉘엿 해가 저간다.”

“네로도 지금 시간이 끝나는 게 아쉬운 건지 멍하니 태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시간이 끝나면, 분명 무언가가 바뀐다.”

“나는 네로의 코어를 돌려받고, 네로는 고양이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겠지.”

“그리고 아린 선배를 죽인 범인에게 복수를 하고, 나는 다시 한 번 나만의 정의를 찾아 마법 소녀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HN “코어를 돌려받으면 다시 고양이로 돌아갈 텐데, 괜찮겠어?”

NR “인간 모습에 딱히 미련은 없어. 그냥 조금 궁금했을 뿐이야.”

HN “뭐가?”

NR “주인님이 어떤 생활을 했었는지.”

HN “아아.”

NR “그러니까 고마웠어. 새로운 주인님.”

HN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앞으로도 우리 집에서 살 거면서.”

NR “으응?”

HN “아린 선배가 너를 나한테 맡겼으니까, 책임지고 내가 너를 키워야지.”

NR “뭐야 그게, 고양이 키워본 적은 있어?”

HN “음... 없는데.”

NR “그럼 내가 혜나를 키워야겠네. 나는 인간으로 살아본 적 있으니까.”

HN “정말이지, 한 마디를 안 진다니까.”

“나는 빙긋 웃으며 네로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었다.”

HN “아, 그러고 보니까 한 가지 주고 싶은 게 있었다.”

NR “주고 싶은 거?”

HN “응, 잠깐 이리로 올래?”

NR “으응?”

“네로는 고개를 가웃거리면서도 나의 뒤를 졸졸 쫓아왔다.”

“얼마 가지 않아 도착한 곳은 놀이동산 내부에 위치한 기념품 상점이었다.”

NR “여기는?”

HN “새로운 추억을 하나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지금 이 시간이 지나면 나는 네로의 추억을 빼앗아가야만 한다.”

“그렇기에 네로에게는 지금까지의 추억을 남겨주고 싶었다.”

NR “정말 아무거나 골라도 돼?”

HN “가게를 사달라는 무리한 부탁만 아니면 뭐든 사줄게.”

NR “뭐야 그게. 아무리 고양이래도 그렇게까지 눈치없지는 않네요.”

“네로는 잠시 가게를 둘러보다니 얼마 지나지 않아 늙름한 사자 인형을 골랐다.”

HN “그걸로 괜찮겠어?”

NR “응, 이 사자. 주인이랑 닮았어.”

HN “이 사자가?”

NR “바보 같이 정직하고, 바보 같이 순수해보이는 점이.”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음이 나왔다.”

“정말, 선배랑 꼭 닮은 인형이네.”

“선배와 함께 하며 지내왔던 순간이 문득 내 뇌리를 스쳤다.”

“언젠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아린 선배에게는 누가 봐도 자신의 업무를 떠넘기고 있다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 동료 마법 소녀가 한 명 있었다.”

“나는 그 사람이 무척이나 싫었다.”

“제대로 일을 자신의 마무리짓는 것도 아니면서 남에게 일을 떠넘기거나 하고, 무리하게 일을 벌려서 남에게 시키거나 하고.”

“아린 선배가 항상 피해보는 입장에 있는 게 나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

HN “그런 사람 부탁은 그냥 무시해버리세요. 뭘 그렇게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AR “에이 너무 그러지마, 그 사람도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겠지.”

HN “선배, 그런 사람을 보고 바로 호구라고 하는 거라구요.”

AR “호구라니 너무하네. 착한 사람이지, 착한 사람.”

HN “정말 앞으로든 계속 그 사람 도와줄 생각이예요?”

“나는 질렸다는 듯 선배에게 물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선배에게서 질문이 돌아왔다.”

AR “혜나 너는 정의라는 게 뭐라고 생각해?”

HN “정의요? 음... 악을 물리치고 뭐 그런 거?”

AR “뭐, 그런 것도 하나의 정의라고 할 수 있겠지.”

AR “그럼 이런 건 어때?”

AR “매일 같이 지각하는 친구에게 열이 받아서, 너도 한 번 기다려봐라 하고 일부러 약속 시간에 늦게 도착하는 일.”

AR “이런 건 정의를 구현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

HN “뭐, 상대방의 나쁜 행실을 되갚아준 거니까 어느 정도는 정의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AR “사람은 살다보면 이런 일들을 수없이 많이 만나게 돼.”

AR “습관적으로 업무를 밀리는 사람이 은근슬쩍 그 장소를 벗어나려고 하는 게 열받아서 남들 앞에서 대놓고 면박을 주고 싶을 때도 있겠지.”

AR “자기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남들에게 책임과 부담을 전가하는 사람에게 잔소리를 늘어놓고 싶을 때도 있겠지.”

AR “그리고 그것도 인터넷 같은 데에서는 \‘정의구현\’이라는 말로 통하고 있잖아?”

“나는 아무 말 없이 아린 선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후 아린 선배는 정말로 터무니없는 말을 꺼냈다.”

AR “근데 나는 말이야.”

AR “정말로 멋진 정의 구현은 단순히 악한 누군가를 처벌하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해.”

AR “누군가의 \‘악의\’에 부딪혔다고, 나까지 그 \‘악의\’에 물들어버리는 건 마법소녀답지

않잖아.”

AR “악의마저 선의로 물들여버리는 게 진짜 마법소녀 같다는 생각, 해본 적 없어?

”나는 아린 선배의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이을 수 없었다.“

”이 사람은 정말 어디까지 순수하고 어디까지 고귀한 걸까.“

HN “그게 뭐예요. 완전 이상론이잖아요.”

HN “그렇게 선의로 그 사람을 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제대로 반성하고 있다는 보장도 없고.”

AR “하지만, 그런 게 마법소녀 아니겠어? 하하.”

“아린 선배의 그 통쾌한 웃음.”

“나는 아직도 선배의 그 통쾌한 웃음을 잊을 수가 없다.”

NR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HN “아니, 잠깐 선배 생각이 나서.”

NR “흐응~ 뭐 하여간 고마워. 헤나.”

“그렇게 우리의 놀이공원 데이트는 끝이 났다.”

“모든 게 끝이 난 후, 우리들은 집으로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겼다.”

“방안에 마주누워,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방안으로 한가득 흘러들어왔다.”

“하늘이 채 담지 못해 흘러내린 달빛은 그대로 방안으로 스며들어, 지금 이 순간 네로와 나를 비쳤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이 나는구나.”

“복잡한 감정이었다.”

“이미 깊이 잠이 든 네로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나도 가볍게 눈을 감았다.”

“괜찮아. 분명 괜찮을 거야.”

“우리는 분명, 괜찮을 거야.”

[종장 - 진실] [Scene9]

“미안해.”

“하지만 이건 분명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주인님에게 코어를 받았을 때부터, 나는 한 가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

“내가 인간이 되어 주인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때부터,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는 없었던 거야.”

“내가 인간이 되었을 때부터 분명 이런 결말은 정해져있었던 거겠지.”

“헤나의 볼에 가볍게 입맞춤을 하고선 나는 목걸이에 걸린 코어를 한 손으로 꼭 쥐고선 중얼거렸다.”

NR “변신.”

“미안해.”

“그리고 고마웠어, 새로운 주인님.”

[Scene10]

HN “네로..... 네로.....?”

“시끄럽게 스마트폰이 울린다.”

“누구야, 지금은 새벽 3시라고.”

“네로가 혹시나 깨지 않았을까 재빠르게 스마트폰을 들고서 주변을 둘러본다.”

HN “네로야?”

“네로가 없었다.”

“뭐야, 화장실이라도 간 건가?”

HN “네로! 어디야! 대답해봐!”

“방 안을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네로는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관에 있던 신발이 보이지 않았다.”

HN “밖으로 나간 건가?”

“나는 그제서야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았다.”

“화면에는 세리에게 온 수없이 많은 부재중 전화와 수십통의 문자 메시지가 찍혀 있었다.”

“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러는 거지?”

HN “\‘아린 선배를 죽인 범인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 같아, 엄청난 마력 반응이 느껴져.\’”

“그 문자 메시지에 순간 소름이 끼쳤다.”

“어째서 지금?”

“손이 파르르 떨려서 스마트폰을 놓쳐버리고 말았다.”

“아니겠지? 아닐 거야.”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나는 마력의 흐름에 정신을 집중하고, 네로가 가지고 간 코어의 마력 흐름을 쫓기 시작했다.”

“온몸이 부서질 정도로 강력하게 마력을 두르고 네로의 행방을 찾았다.”

“무슨 일을 하려는 건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막아야만 했다.”

“막지 않으면 안될 거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나는 네로를 골목길의 한 쪽 구석에서 찾을 수 있었다.”

HN “네로야.....?”

“그곳에는 네로가 있었다.”

“눈부시게 빛나는 녹색빛 코어, 윤기가 흐르는 검은 머리카락.”

“그리고 네로 앞에는 전신에 혈흔이 가득한 채로 한 사람이 쓰러져있었다.”

“네로가 이 사람을 찌른 거야? 어째서?”

“나는 다급하게 네로를 향해 외쳤다.”

HN “어째서 네가 여기에 있는 거야?”

NR “혜나는 오지 않았으면 했는데. 혜나가 가장 먼저 와버렸네.”

HN “말 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NR “있잖아, 주인님은 정말로 정의로운 사람이었어.”

HN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말하라고!”

NR “너희들은 주인님을 죽인 악령이니 괴물이니 하는 존재들을 찾고 있는 모양이지만.”

“네로는 가벼운 손놀림으로 쓰러져 있는 사람을 향해 칼을 찔러 넣었다.”

“고통을 못 이긴 사람의 비명 소리가 퍼져나갔다.”

HN “무슨 짓이야! 그 사람은 민간인이라고!”

NR “이 사람이야. 주인님을 죽인 범인.”

HN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린 선배를 죽인 범인이.....”

“그냥 \‘사람\’이라고?”

NR “주인님은 정말로 정의로운 사람이라 말이야.” “

NR 마법소녀의 빌어먹을 규율을 지키면서도 항상 정의로운 사람이고자 했어.”

“네로의 눈매가 눈에 띄게 날카로워졌다.”

NR “그날도 그랬어.”

NR “산책하던 도중 나를 옆에 있던 풀숲에 내려놓고서 주인님은 그렇게 말했지.”

NR “저 사람들 싸우고 있는 거 같으니까 잠시 말리고 오겠다고.”

“그것 참, 아린 선배다운 말이네.”

NR “하지만 악령에 씌인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 당연히 마법소녀의 힘은 쓸 수 없었어.”

NR “마법소녀의 규율로 정해진 거였으니까.”

NR “그러니까 주인님은 맨몸으로 그들의 싸움을 말리러 간 거지.”

“그 이후의 결말은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NR “그리고 주인님은 결국 격앙된 화를 참지 못 했던 한 인간에게 찔리고 말았어.”

NR “기습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반응할 새도 없었지.”

HN “.....”

NR “나는 그리고 옆에서 모든 광경을 보고 있었어.”

NR “주인님의 숭고한 \‘정의\’가 인간의 악의에 의해 가볍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고.”

NR “나는 고양이의 몸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이.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고.....”

“나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천천히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다.”

NR “너희들 마법소녀가 이야기하는 정의란 건 도대체 뭐야?”

“정의.”

NR “단지 악령 몇 마리 처치하고 세계를 지키는 정의의 사도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정의. 정의. 정의.”

NR “빌어먹을 규율에 사로잡혀서 좋아하는 사람 하나 구하지 못하면서, 그만 걸 마법소녀라고 말하고 싶은 거냐고!”

“서서히 몸에서 힘이 빠져나간다.”

“내 정의는 도대체.”

“내가 마법소녀를 하는 이유는 도대체.”

NR “그러니까 나는 나만의 정의를 위해, 마법소녀가 되었어.”

“네로는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NR “내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정의를 지키기 위해.”

HN “정의는.....”

NR “인간의 정의 같은 건 잘 모르겠어.”

HN “내가 지키고 싶었던 정의는.....!”

“죽었다. 인간의 손에.”

“코어에 담겨 있던 힘이 점점 빠져나가 변신이 풀려버린다.”

NR “혜나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HN “모르겠어.”

NR “이대로라면 분명 아무런 일도 없이 사건은 종결될 거야.”

NR “오지랖 넓었던 마법소녀가 당한 \‘불행한 사고\’로 사건은 끝이 날 거라고.”

NR “마법소녀는 인간에게 관여해서는 안되니까.”

“네로가 찬찬히 나를 향해서 발걸음 옮긴다.”

NR “그러니까 자, 이건 찬스야.”

NR “너만의 정의를 되찾을 찬스.”

“네로는 피가 묻은 칼을 나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다정하게 나를 껴안은 채, 칼을 들고 있는 나의 손을 가볍게 그러쥐고서.....”

NR “혜나, 네 손으로 마무리짓는 거야.”

선택지

1번 선택지 : “그 사람을 찌른다.” jump Select1

2번 선택지 : “그 사람을 찌르지 않는다.” jump Select2

label Select1:

“한 발 한 발, 나는 네로와 함께 피를 흘리며 쓰러진 사람을 향해 다가갔다.”
“아린 선배의 목숨을 앗아간 그 사람이 내 눈앞에 있다.”
“아린 선배의 원수가 바로 내 눈앞에 있다.”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자신이 누군가를 죽였다는 죄책감도 없이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겠지.”
“내 가장 소중한 사람을 죽여놓고도 모든 것을 잊어버린 채로, 평생을 살아가겠지.”
“과연 그걸 \‘정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누군가를 죽인 범인이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살아가는 게 마법소녀의 \‘정의\’인 거야?”
“멈출 수 없었다.”
“감정이 점점 끓어올라 나의 행동을 부추기고 있었다.”
“나는 어느새 네로의 손길을 벗어난 채로 스스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NR “네 손으로 정의를 이루는 거야.”

“그래, 이게 정의가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정의라는 거야.”
“아린 선배의 복수를 이루는 건 계속해서 내가 바라던 꿈이었잖아.”
“복수하는 거야. 복수하는 거라고.”
“나는.... 나는.... 나는.....!”

“깊게 칼이 찢리는 소리와 함께 그 사람이 허무하게 쓰러진다.”
“나는 몸을 떨며 튕겨져나가듯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쓰러지고 말았다.”
“네로는 그런 나에게 다가와 나의 머리를 상냥하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NR “축하해.”

NR “헤나는 헤나만의 정의를 이룬 거야.”

“어지러운 기분이었다.”
“뭐라 형용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내 심장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NR “헤나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HN “나는.... 모르겠어.....”

NR “역시 내가 헤나를 키워줄까?”

“나는 천천히, 네로의 품에 안겼다.”
“아아,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나인 그대로.”
“모든 것을 놓아버렸다.”

- End 1 : 복수라는 이름의 정의 -

label Select2:

“한 발 한 발, 나는 네로와 함께 피를 흘리며 쓰러진 사람을 향해 다가갔다.”

“아린 선배의 목숨을 앗아간 그 사람이 내 눈앞에 있다.”

“아린 선배의 원수가 바로 내 눈앞에 있다.”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자신이 누군가를 죽였다는 죄책감도 없이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겠지.”

“내 가장 소중한 사람을 죽여놓고도 모든 것을 잊어버린 채로, 평생을 살아가겠지.”

“과연 그걸 ‘정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누군가를 죽인 범인이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살아가는 게 마법소녀의 ‘정의’인 거야?”

“하지만 그 순간, 아린 선배의 한 마디가 문득 내 뇌리를 스쳤다.”

“‘내가 없어도 꼭 제대로 어엿한 마법소녀가 되어야 한다?’”

HN “아니야. 이런 건 잘못됐어.”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네로를 향해 돌아섰다.”

HN “이런 건 아린 선배가 원했던 정의가 아니야.”

NR “아직도 그런 이상론을 펼치려는 거야?”

NR “너도 알고 있잖아. 마법소녀가 죽으면 모든 사람에게서 잊혀진다는 걸.”

NR “이 사람은 주인님을 죽였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채 당당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그런 주인님을 위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고.”

NR “그게 혜나 생각에는 올바른 정의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NR “소중한 사람이 죽어가는 걸 바라만 보는 게 정의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네로가 감정에 복받쳐 자신의 말을 쏟아냈다.”

NR “혜나가 주인님이 될 필요는 없어.”

“네로의 눈에 한가득 눈물방울이 맺혔다.”

NR “혜나의 방식으로 혜나만의 정의를 찾으면 되는 거라고!”

“나는 그런 네로에게 다가가 네로를 꼭 안아주었다.”

HN “나는 항상 아린 선배처럼 되고 싶었어.”

HN “불의를 보면 참지 않고 뛰어나가는 모습.”

HN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일이 있다면 망설이지 않고 나아가는 모

습.”

HN “그 모습 하나하나가 눈부시고 멋져보였어.”

NR “그렇다면 그런 주인을 죽인 이 사람을.....!”

HN “하지만 말이야, 아린 선배라면 분명 이렇게 말했을 거야.”

HN “누군가의 악의에 부딪혔다고, 헤나까지 악의에 물들어버리는 건 전혀 마법소녀답지 않다고.”

NR “그런 건.....! 궤변이야! 바보 같이 정직하고, 강했던 주인이니까 가능했던 거라고!”

”확실히 그렇다.“

”반쪽짜리 마법소녀인 내가 선배의 정의를 완벽하게 따라가는 건 무리겠지.“

”선배를 흉내내는 것에 불과한 건,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

”하지만.“

HN “나는 어엿한 마법소녀가 되겠다는 아린 선배의 약속을 지키기로 다짐했으니까.”

HN “네로를 잘 부탁한다는 부탁을 지키기로 다짐했으니까.”

“선배를 흉내내는 것에 불과하더라도.”

“그것이 온전히 나의 정의가 아니더라도.”

HN “선배가 나와 함께한 시간들은 아직 내 안에 남아있어.”

HN “아린 선배가 나에게 남겨준 것들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는 않으니까..”

“나는 목욕탕에서 네로가 해주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다.”

“네로는 그 말을 듣고 멍하니 나를 바라보았다.”

NR “그 말은 치사해.....”

NR “그렇게 말하면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잖아.....”

HN “나는 생각 이상으로 치사한 사람이거든.”

HN “아린 선배처럼 강직하게 누군가를 설득할 자신은 없어.”

HN “누군가를 설득할 때도 남의 말을 빌려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야.”

HN “하지만 말이야. 나도 믿어보고 싶어.”

HN “아린 선배의 어리석은 흉내일지 몰라도, 세상이 악의를 넘어선 선의로 물들 수 있다고 믿어보고 싶어.”

HN “악의로 물든 네로를 바라보는 것도 분명 아린 선배가 원했던 일은 아닐 테니까.”

“네로는 아무 말 없이 방울방울 눈물을 흘렸다.”

NR “바보야..... 주인도, 헤나 너도.....”

NR “바보라고..... 바보.... 바보.....”

“네로의 손에 들린 칼이 풀썩 땅으로 떨어진다.”

“네로는 온몸의 힘을 풀고서 그대로 나에게 몸을 맡겼다.”

HN “이해해줘서 고마워, 네로.”

“나는 네로에게 목에 걸린 코어를 다시 돌려받았다.”

“네로는 인간의 모습에서 차근차근 고양이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나는 고양이가 되어버린 네로를 품에 안고서 네로의 등을 가볍게 쓸어주었다.”

HN “열심히 했구나. 네로.”

“주인의 복수를 위해 코어의 힘을 사용해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뛰어다니다니.”

“고생했어. 네로.”

“나는 무겁게 숨을 들이쉬었다.”

“아린 선배 살인 사건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scene BCG

SR “별다른 건 아니고, 그냥 간략한 사건 보고야.”

HN “응.”

SR “아린 선배의 코어를 가지고 도주하던 악령은 말단 마법소녀 헤나에 의해 완전 소멸. 그 과정에서 민간인 한 명의 부상을 확인했지만 죽음에 이를 정도의 치명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 됨.”

HN “응, 확인했어.”

SR “마법부는 이번 사건에 공헌한 말단 마법소녀 헤나를 정식 마법소녀로 승격.”

HN “음... 그건 좀 부담스러운데.....”

“세리는 짧은 설명을 마치고서 나에게 닿을 듯 가까운 거리에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SR “이제 괜찮은 거야?”

HN “뭐가?”

SR “변신하는 거.”

HN “응, 괜찮아. 전혀 문제 없어.”

“세리는 걱정하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지만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세리의 눈빛에 답했다.”

SR “헤나라면 분명 복수해줄 거라고 생각했어.”

HN “복수라.....”

HN “정확히 말하면 복수는 아니긴 하지만.”

SR “응?”

HN “아니야, 그냥 하는 말이야.”

SR “궁금하게 또 왜 그러는데~ 제대로 설명해줘!”

“사건은 이렇게 실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가볍게 끝나버렸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나에게 있어서는 무거운 하나의 과제로 남았다.”

“나만의 정의.”

“어리석고, 바보 같은 나라도 언젠가는 아린 선배처럼 빛나는 나만의 별을 찾을 수 있기를.”

“그렇게 빌었다.”

- End 2 : 헤나만의 정의 -